

# 2004년도 한문학 분야 연구 동향

황재문(서울대)

1. 서론
2. 연구 경향의 개괄
3. 寓言과 生態思想
4. 지역학의 가능성
5. 현대사회에서의 한문학의 역할
6. 결론

## 1. 서론

이 글은 2004년도 한문학 분야의 연구 성과를 검토하고 연구 동향을 살피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2004년도에 간행된 한국한문학을 연구한 학술논문 및 논저를 논의의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약간의 부가설명이 필요할 듯하다. 한문학 분야의 경우 학술논문 및 논저와 교양물의 경계 한문학과 여타 분야 사이의 경계가 불분명한 예가 적지 않고, 학위논문의 경우 간행년도를 정하는 방식이 대학별·목록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전년도까지의 연구 동향 보고의 분류방식을 따를 것이다. 즉 한문학의 영역에 속하는 작품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연구 성과들을 목록으로 제시하되, 한문소설 관련 연구성과의 경우에는 본문에서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국한혼용문으로 된 작품을 다루었거나 한자학 혹은 한문교육 분야의 연구성과들은 이 논의에서 제외한다. 한편 학위논문의 경우에는 2003년도 2학기과 2004년도 1학기에 제출된 논문을 검토의 대상으로 할 것이다. 2003년도 연구 동향에서는 2003년도 2학기에 제출

된 논문 가운데 일부는 다루고 일부는 다루지 않았는데, 이 가운데 2003년도 연구동향에서 다루지 않은 2003년도 학기 제출 학위논문들은 이 글의 검토 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말미의 목록에 제시하였지만 이상의 기준에 해당되는 한문학 분야 연구 성과는 상당한 수에 이른다. 이들 각각의 요지를 정리하고 의미와 공과를 밝히는 일은 여기에서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 새롭게 밝혀낸 사실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는 것도 어려울 듯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선 한 해 동안의 연구 동향을 개괄적으로 제시하고, 이어서 특별히 많이 다루어졌거나 향후 연구에 있어 문제 삼을 만한 주제에 대해서 검토하는 방법을 취하고자 한다. 물론 1년 동안의 연구성과를 대상으로 이러한 선별 작업을 하게 되면 학회의 기획주제나 각종 연구사업에 주목하게 되어 일종의 착시 현상을 가져올 수 있음은 인정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획이 연구사적 필요에 의해 추진되었음도 또한 사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 경향의 개괄

2004년도 연구성과들의 대략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한시 연구 특히 개별 작가의 한시를 중심으로 살핀 작가론적 경향의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함을 우선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십 여 편의 학위논문을 포함한 한문산문에 대한 다수의 연구성과가 또한 제출되어 있음은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 판단된다. 특히 석사학위 논문에 이러한 연구성과의 비중이 높다는 점은, 향후 연구경향의 변화를 짐작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듯하다. 단행본의 경우 박사학위 논문을 일부 수정하고 몇 편의 논문을 합한 예가 많은데, 이들 성과들은 이미 지난 몇 년 간의 연구동향 보고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이들 연구성과를 하나하나 평가하기는 어렵고 수량적으로 비율을 따지는 것은 연구 동향, 특히 2004년도의 경향을 살피는 데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한문학 연구사에 대한 반성적인 언급에

서부터 논의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민병수<sup>1)</sup>는 근대 학문 도입 이래의 한문학 연구사를 돌아보건대 한문학의 眞域에 접근하기보다는 소설이나 수필과 같은 주변적인 영역에 주목해온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시 연구의 경우에 있어서도 Text 파악에 힘쓰기보다는 사상연구의 수단으로 활용된 경향이 있어서, 그 진수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Text 파악으로부터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민병수의 지적은 수십년의 연구사를 개괄한 데서 나온 비판이지만, 2004년도의 연구성과에 대해서도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을 듯하다. 작가의 생애를 재구하거나 사상을 검토하는 데 관심을 기울인 논문들의 의미를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동시에 작품 자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면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결과물로서의 개별 연구성과의 부분적인 흠결을 문제삼지 않는다면, 작품 자체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수적이라는 인식 자체는 이미 학계에 공유된 것으로 보인다. 자료의 발굴과 번역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詩나 文을 그 자체로 연구하고자 하는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번역서 가운데 『역주 목은시교』 7~8,<sup>2)</sup> 『국역 연암집』 2<sup>3)</sup>는 보다 정밀한 주석서에 대한 학계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韓脩와 그의 漢詩』<sup>4)</sup>는 자세한 주석과 번역 뿐 아니라 이본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 세 편의 논문을 붙여서 작품 및 자료 자체에 보다 천착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보이고 있다.

한편 논문의 경우에는 김종서의 「16世紀 湖南詩壇과 唐風」<sup>5)</sup>과 임준철의 「漢詩 意象論과 朝鮮中期 漢詩 意象 研究 : 林悌·車天輅·權鐸·鄭斗卿을 중심으로」<sup>6)</sup>를 작품 자체에 주목하고자 하는 시도의 예로 들 수 있을 듯

1) 민병수, 「漢文學은 Text 探究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語文研究』 32-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4.

2) 여운필·성범중·최재남 공역, 『역주 목은시교』 7~8, 月印, 2004.

3) 신호열·김명호 공역, 『국역 연암집』 2, 민족문화추진회, 2004.

4) 성범중·박경신, 『韓脩와 그의 漢詩』, 국학자료원, 2004.

5) 김종서, 「16世紀 湖南詩壇과 唐風」,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4.

6) 임준철, 「漢詩 意象論과 朝鮮中期 漢詩 意象 研究 : 林悌·車天輅·權鐸·鄭斗卿을 중심으로」,

하다.

김중서의 경우 三唐詩人을 중심으로 한 호남시단에서의 唐風의 실상을 밝히고자 했는데, 당시 인물들의 비평에 의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시인의 개성을 밝혀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반면 임준철은 한시 분석의 방법론으로서 ‘意象’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임제 등 네 사람의 시에 ‘의상론’을 적용하고 있다. 임준철의 논의가 방법론에 목표를 두고 있지만, 연구태도 및 문제의식에 있어서는 작품 자체 및 작가의 개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김중서의 논의와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즉 한시 작품을 작가와 연관시키는 연구들에서 한시의 관습적이며 고정적인 패턴에 의해 시인들 사이의 차이가 드러나지 못하고 동질적인 측면이 부각되는 점을 문제 삼음으로써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작품 자체’, 그리고 ‘작가의 개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논문의 성과는 어떠한가? 김중서의 경우 선행 작업으로 唐風의 특질 및 수용 과정을 개괄하고 이어서 호남시단에 속하는 인물들의 詩會를 비롯한 교유관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삼당시인의 시를 분석함으로써 唐風의 실상과 이들의 風格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과정에 상당한 자료를 거론하여 논의를 입증하였고, 한시 작품을 분석하는 데에는 회화의 수법에 이르기까지 당대문화를 바탕으로 한 방법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이 작가의 개성을 파악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라 하겠지만, 인상비평을 얼마나 벗어나고 있는지는 다소 의문스럽다. 또한 논리의 빈틈을 자료를 통해 메우려는 시도가 일부 보이는데, 이것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은 듯하다. 예컨대 ‘호남시단’의 존재와 성격을 지리·경제적 배경과 학맥 등을 통해 입증하고자 한 것은, 歌壇에 대한 전대의 논의나 호남의 시와 인물에 대한 당대인들의 평가를 거론한다고 하더라도 그리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호남에서 계속 생활한 인물과 서울로 떠난 인물들을 함께 호남시단에 포함시켰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역적인 특징을 거론하지 않는 편이 오히려 논리적으로는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도 든다.

임준철의 경우 주로 중국의 용례를 검토하여 '意象'의 개념과 체계를 정립하고, 임제·차천로·권필·정두경의 시를 이를 통해 분석하는 순서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임준철은 '意象'이 『周易』의 "立象以盡意"에서 유래한 말로 物象·形象·興象·意境 등과 관련을 맺고 있지만 그것들과 구별되며, '이미지'와도 유사하지만 차이를 보이는 용어라고 했다. 또 '의상'은 우리 비평사에서는 용례를 거의 발견하기 어려운 낯선 용어이지만 중국에서는 오랜 전통을 가진 비평용어라고 했다. 그런데 이 '의상'의 의미가 일정하지 않아 실제 작품분석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개념과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의상'을 통한 시인의 개성의 발견이라는 문제는 실제 적용에 있어서 몇 가지 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논자 스스로 지적하고 있듯이 우리 문학사에서 용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한시를 쓴 시인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개념이 그들 작품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된다는 뜻이 된다. 둘째, 정립된 의상의 개념이 意境에 가까운 협의의 뜻과 이미지 혹은 시어에 가까운 광의의 뜻이 혼용된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실제 작품분석에 있어 평자의 주관이 과도하게 개입될 수도 있어서 지나치게 유연한 개념이 되지 않을지 의심스럽다. 사실 '의상'은 이전에도 한시연구에서 언급된 바 있는 용어이며, 2004년도에도 하정승의 연구에서 의해 활용된 바 있다.<sup>7)</sup> 그렇지만 하정승은 '意境'을 따로 설정하고 '의상'은 이미지에 가까운 개념으로 활용하여 임준철의 용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셋째, '의상'이 한시를 한시답게 이해하는 방법의 하나일 수는 있어도 그것이 한시의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새로운 문제거리가 될 수 있다.

다소 거칠게 말한다면, 이들 논문에서 작가의 개성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 것은 적어도 작품의 감상에 있어서는 상당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지만 둘 모두 인상비평, 혹은 주관성의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위험성을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은 주로 작품의 형식과 같

7) 하정승, 「陶隱 李崇仁 詩의 意象과 美意識의 表出樣相」, 『東方漢文學』 27, 동방한문학회, 2004.

은 객관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탐구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시의 형식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은 한시 연구 논문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2004년도 연구성과 가운데는 詩語를 계량적으로 다루어서 객관적인 작품 특질 파악을 시도한 예가 있어 주목된다. 詩語의 분석을 앞세운 남재철의 논문<sup>8)</sup>과 助字와 색채어, 疊語의 분석을 통해 문예미를 지적한 김윤조의 논문<sup>9)</sup>이 그러한 예에 속한다. 이들의 논의는 작품 자체의 감상에 기반을 둔 연구보다는 객관화된 근거를 제출했다는 장점이 있는데, 반면 연구대상의 범위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작품 자체의 미적 특징에 대해서 논하기 어렵다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산문의 경우 “소설이나 수필”을 벗어난 영역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거니와, 특히 몇 년 전부터 이어진 소품문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지적할 만하다. 2004년에도 尺牘에 대한 두 편의 논문<sup>10)</sup>과 한 작가의 소품문을 정밀하게 분석한 성과<sup>11)</sup> 등이 발표되었다. 이들 소품문 연구의 경우 비교적 손쉽게 대중적인 읽을거리로 가공될 수 있음은 지난해의 연구성과 보고에서 지적된 바 있는데, 2004년의 경우에도 그러한 예를 찾아볼 수 있었다.<sup>12)</sup> 물론 이들 논문에서는 소품문 자체의 소개 뿐 아니라 소품문의 미적 장치, 유행 배경 및 사상적 성격 등도 검토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 자체의 분석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

산문 연구의 성과로는 또한 중국문학과와의 관련성을 상세하게 다룬 심경호의 두 편의 논문<sup>13)</sup>과 記文을 정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산문의 문화사적 의

- 
- 8) 남재철, 「四家詩人の 詩語論-李書九의 경우를 중심으로-」, 『韓國漢詩研究』 12, 한국한시학회, 2004.
- 9) 김윤조, 「유득공 시의 문예미-『사가시집』에 실린 시를 중심으로-」, 『韓國漢詩研究』 12, 한국한시학회, 2004.
- 10) 배미정, 「朝鮮後期 尺牘文學의 流行과 그 背景 : 申靖夏를 중심으로」,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홍인숙, 「李德懋 尺牘 연구-‘내면’, 혹은 ‘시적 자아’의 발전-」, 『韓國漢文學研究』 33, 한국한문학회, 2004.
- 11) 박현숙, 「李鈺 소품문의 작품 세계」,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4.
- 12) 배미정, 「신정하 尺牘의 즐거움과 아름다움」, 『문헌과해석』 27, 문헌과해석사, 2004.
- 13) 심경호, 「조선후기 한문학과 袁宏道」, 『韓國漢文學研究』 34, 한국한문학회, 2004 ; 심경호, 「한국 한문산문의 발달과 韓愈 문장의 수용」, 『어문논집』 50, 민족어문학회, 2004.

의를 지적한 안대회의 논문<sup>14)</sup>도 주목된다. 이들 논문은 한국문학과 외국문학, 문학과 여타 학문 사이의 관련성을 정밀하게 살핌으로써 한문학 연구의 외연을 넓히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듯하다.

한편 한문학 연구에서 그간 잘 다루어지지 않던 분야에 대한 연구가 나타난 점도 주목할 만하다. 김동준<sup>15)</sup>과 유기옥<sup>16)</sup>은 銘을, 신두환<sup>17)</sup>은 상소문을 연구대상으로 삼아서 논문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특히 김동준의 논문은 한국의 器物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으며 동시에 문학적 의의를 밝혀서 주목할 만한 성과로 판단된다. 물론 보다 세밀한 연구가 향후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銘이 문학 연구에서 다룰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 대상을 정리해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밖에 해마다 새로운 성과로 지적할 만한 것이 새로운 작가나 작품의 발굴일 것이다. 목록에 제시된 여러 편의 작가론들 가운데서 이러한 예를 찾을 수 있는데, 이 경우 해당 작가나 작품의 위상을 어느 정도 과장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예도 적지 않다. 한문학의 연구가 연구 대상을 칭송하거나 높이기 위한 것이어서는 곤란하다고 한다면, 이들의 문학사적 위상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거나 혹은 이들 작가나 작품에서 현대 혹은 현대문학과의 접점을 찾아내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3. 寓言과 生態思想

최근 수년 간 지속적인 연구성과를 내었던 주제 가운데 우언과 생태사상은 학회의 기획주제로도 다루어졌다. 또한 우언의 경우에는 별도의 연구성과를 여럿 내어서 2004년도 연구동향의 하나로 지적할 만하다.

한국고전문학회에서는 ‘東亞細亞 寓言文學의 性格’을 주제로 학술회의

14) 안대회, 「18·19세기의 주거문화와 상상의 정원-조선후기 산문가의 記文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97, 진단학회, 2004.

15) 김동준, 「한국 器物銘의 역사와 성격에 대한 小考」, 『진단학보』 97, 진단학회, 2004.

16) 유기옥, 「벼루 소개 銘에 受容된 儒家的 處世의 指標와 意味」, 『韓國言語文學』 52, 한국언어학회, 2004.

17) 신두환, 「'상소문'의 문예미학 탐색」, 『韓國漢文學研究』 33, 한국한문학회, 2004.

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서 한국한문학 분야에 대해서는 김영<sup>18)</sup>과 윤주필<sup>19)</sup>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밖에 김영<sup>20)</sup>진재교,<sup>21)</sup>정연봉,<sup>22)</sup>조상우<sup>23)</sup> 등이 우언과 관련된 논문을 발표했다.

寓言이 한국문학에 한정된 문제거리가 아니며 또한 고전문학이나 한문학 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은, 이들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성과이다. 그렇지만 일본이나 중국의 발표자 및 고전문학회의 개별 논문 뒤에 첨부된 논평들을 살펴보면, 우언의 의미나 범위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활용의 문제, 즉 장자를 중심으로 한 전형적인 우언이 아닌 각국에서의 변형된 형태나 혹은 소설이나 시 등에서 활용되는 우언의 사례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는 그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는 듯하다. 논자에 따라서는 ‘우의적’이라는 의미로까지 확장하기도 하였고, ‘우화에 가까운 의미’로 파악하고 있는 듯한 예도 보인다.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그것을 정리하고 종합하는 연구성과가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한편 한국한문학회에서는 2003년 9월에 ‘漢文學과 生態·人間·自然’을 주제로 발표대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여기서 발표된 논문들이 2004년에 간행된 『한국한문학연구』 33집에 수록되었다.<sup>24)</sup> 이들 논문은 오늘날 인류에게 닥친 생태학적 위기에 대한 인문학적 해결방안을 다루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겠는데, 특히 한문학 연구가 현실 사회에 대해 발언하는 하나의 통로로서

- 
- 18) 김영, 「비움[虛靜]의 哲學과 寓言」, 『고전문학연구』 26, 한국고전문학회, 2004.  
 19) 윤주필, 「동아시아 고소설의 우언 활용의 비교 고찰」, 『고전문학연구』 26, 한국고전문학회, 2004.  
 20) 김영, 「老莊의 生態思想과 寓言」, 『韓國漢文學研究』 33, 한국한문학회, 2004.  
 21) 진재교, 「茶山의 寓言詩와 그 性格-〈海狼行〉의 경우-」, 『고전문학연구』 26, 한국고전문학회, 2004.  
 22) 정연봉, 「한국 한문 우언론-우언의 원류와 양식적 특성에 관한 일 고찰-」, 『우리어문연구』 22, 우리어문학회, 2004.  
 23) 조상우, 「애국계몽기 우언문학에 표현된 일본의 형상과 그 의미」, 『우리어문연구』 22, 우리어문학회, 2004.  
 24) 김상홍, 「韓國 漢文學과 生態의 問題」, 『韓國漢文學研究』 33, 한국한문학회, 2004 ; 이종호, 「퇴계 이황의 유기체 우주론과 생태사상」, 『韓國漢文學研究』 33, 한국한문학회, 2004 ; 우용순, 「장유 사유방식에 대한 한 이해-생태학적 인식의 모색-」, 『韓國漢文學研究』 33, 한국한문학회, 2004 ; 김영, 「老莊의 生態思想과 寓言」, 『韓國漢文學研究』 33, 한국한문학회, 2004.

의 의의를 가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판단된다.

#### 4. 지역학의 가능성

『동방한문학』 26집에는 ‘지역학으로서의 한문학’이라는 주제 하에 10편의 기획논문이 실려 있다. 총론에 해당하는 논문 1편을 앞세우고 이어서 서울·경기, 부산, 오대산(강원), 충남, 쌍곡구곡(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의 순서로 각 지역의 한문학을 살핀 것인데, 이 기획은 그 성과를 떠나 현재 한문학계에서 ‘지역학’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을 듯하다. ‘지역학’은 다양한 의미와 배경에서 또한 다양한 경로로 제시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지방대학의 역할과 위상의 문제가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 기획은 그러한 문제의식을 구체적인 연구로 풀어낸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한민족어문학회에서 ‘지방분권화시대의 한국어문학’을 기획주제로 내세워서 어학, 고전문학, 한문학, 현대문학 분야의 발표회를 개최한 것도 이와 유사한 사례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고전문학회의 『고전문학연구』 25집의 기획주제가 ‘新文明 사회에 있어서 國文學科의 제도적 개혁과 학문적 쇄신 문제’였고, 이 가운데 지방대학의 문제가 거론된 바 있다는 점도 어느 정도는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민족어문학회에서 한문학 분야의 발표를 맡은 이종묵<sup>25)</sup>은 문화콘텐츠와 문화관광 자료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지방문학 연구가 현실적으로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이종묵은 현장조사를 통해 자료를 집성하고 대상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데 지방대학의 지방문학 연구자가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학계에서도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25) 이종묵, 「지방화 시대 한문학 연구의 시각과 방향」, 『韓民族語文學』 45, 한민족어문학회, 2004.

이종목의 주장은 한문학 연구가 ‘생활’을 함께 연구하는 통합적인 사고에서 출발하되 대상에 대해 미시적으로 접근해 가는 방향을 취해야 한다는 ‘총체적 사고와 미시적 접근’으로부터 도출된 것인데, 이는 지역학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이면서 동시에 현재 학계의 하나의 중요한 흐름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문헌과해석』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미시적 접근, 각종 연구사업에서 추진되고 있는 자료의 집성 및 분석, 유산기를 중심으로 한 연구논문들의 성과가 어느 정도는 이러한 공통 인식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2004년에 발표된 몇 편의 논문<sup>26)</sup>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도출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발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의미에서의 지역학은 한문학이 문학연구로부터 문화연구, 혹은 관광산업에 대한 기초형성의 ‘실용적인’ 분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한편, 문학 연구로서의 의의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상당한 규모의 연구사업 혹은 출판사의 수익을 증대시킬 만한 교양독서물의 간행을 그 결과로 예상할 수 있을 법한 이러한 연구는, 한문학 연구에 있어 문학 혹은 한국문학의 성격에 대한 탐구를 부차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릴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소 지나친 말일지는 몰라도 한문학 연구가 일종의 설명문이나 감상문을 양산하는 체제가 될 것은 아닌지도 의문스럽다.

지역학 자체의 문제로 돌아가 보자. 그것이 학문적 유행에서부터 출발했건 혹은 지방대학이나 인문학의 위기의식에서부터 출발했건, 연구대상의 성격상 한문학이 지역학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인 듯하다. 물리적인 여건이 유리할 뿐 아니라 지방대학의 지역의 특성을 살린 각종 연구소들이 활성화되어 있고 한문학 연구자들이 그러한 연구소에 관계하고 있는 예가 많다는 점에서도 한문학은 지역학의 중요부분이 될 만한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 할 것이다. 사실 이러한 연구소들에서는 굳이 지역학의 이름을 내걸지 않더라도 이미 상당한 연구성과를 내고 있다. 그런데 이들 연구성과 가운데는 지방문학 연구자의 장점을 살린 것이 적지 않

26) 이종목, 「조선시대 臥遊 文化 研究」, 『진단학보』 98, 진단학회, 2004; 이군선, 「耳溪家와 牛耳洞」, 『韓國漢文學研究』 33, 한국한문학회, 2004.

지만, 그 지역 혹은 지역출신 인물의 장점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은 유의할 만한 부분일 듯하다. 장점은 살리고 위험성은 방지하는 차원에서 앞으로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 지역의 지역학 연구가 각기 독립적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여러 지역의 지역학을 비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 예를 들면 앞서 언급한 동방한문학회의 기획 같은 것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판단된다.

## 5. 현대사회에서의 한문학의 역할

수많은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인문학의 위기, 고전문학의 위기, 한문학의 위기 등과 같은 언급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인문학이나 고전문학, 한문학 연구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현실적으로 존재함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듯하다. 그것은 단순히 외적 조건 즉 경박해지는 사회의 변화 탓으로 돌릴 문제는 아닐 것이다. 실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민은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동양한문학회의 ‘한문고전의 현대적 활용’은 그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한 기획주제로 주목된다. 여기서 강명관<sup>27)</sup>은 한문학의 자기 비판을 거친 대중화가 필연적인 것이라 했으며, 심경호<sup>28)</sup>는 고전을 현대적 텍스트로 재생산하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강명관은 한문학의 문제점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솔직하게 지적하고 있다. “가련한 숲과 나무들”이라는 탄식이 나올 만큼 현재의 한문학 연구가 펄프만 없애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하여, 대중과의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문학이 의의를 찾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과거에는 한문학이 민족, 전통, 윤리 등의 가치에서 존재의의를 찾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가치들에 기댈 수 없게 된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또한

27) 강명관, 「한문고전의 활용-대중화의 전제조건」, 『東洋漢文學研究』 20, 동양한문학회, 2004.

28) 심경호, 「원전연구와 고전 텍스트의 현대적 변용」, 『東洋漢文學研究』 20, 동양한문학회, 2004.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그렇지만 그 결론이 흥미 혹은 ‘엔터테인먼트’로 연결된다는 점, 그리고 그것을 대안으로 주장한 점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한문학 연구자가 내놓은 ‘엔터테인먼트’가 대중화 혹은 실용화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점은 몇 가지 예를 통해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연구의 부산물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 아닐까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한문학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이 사회라면 그 사회 역시 꾸준히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만 한문학이 현실 사회와의 관련성을 계속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은, 연구자들 누구나 거듭 되새겨보아야 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심경호의 논의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과 예증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심경호는 고전문헌의 1차가공(문헌정리)과 2차가공(주석과 번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그 방향을 찾기 위해 일본의 예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독자의 차이에 대한 지적은 특히 향후 한문학의 현대적 활용의 방향을 정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직접적으로 한문학의 위기를 지적하는 글을 쓴 경우는 많지 않지만, 사실상 한문학의 위기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해결방안은 여러 사람들이 모색해 오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상 많은 연구성과들이 그러한 모색의 결과물일 것이라고 짐작된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성과들이 이러한 고민에 대한 성실하면서도 다양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기를 기대해 본다.

## 6. 결 론

거칠게나마 2004년 한 해의 연구성과들을 점검해 보면서 다소 의아스럽게 생각되었던 점 두 가지를 지적하면서 논의를 마치고자 한다. 첫째는 ‘왜’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그에 대해 답하고 있는 논저가 많지 않았다는 점이며, 둘째는 그 동안 왕성한 활동을 보였던 연구자들 가운데 2004년도의 논

저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물론 목록작성 과정에 주요 논제가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러한 현상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동시에 가지게 된다. ‘왜’라는 질문을 제기한 논제가 많지 않았다는 것은, 한문학 분야에서 논증보다는 설명을, 작품해석보다는 자료해설을 중시하는 연구풍토가 형성되었기 때문은 아닌지 의심된다. 이러한 연구풍토가 형성된 원인은 ‘한문학의 위기’에 대한 인식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또는 학회의 논문심사나 대학의 연구업적 평가방식과 같은 제도적인 문제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도 갖게 된다. 만약 그렇다면 이전에 왕성한 활동을 보였던 연구자들의 논제가 줄어든 것도 이러한 환경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법—예컨대 보다 장기적인 연구를 통한 연구서의 서술—일 수 있을 듯도 하다.

한편으로 연구자가 “나’라는 주어를 복권시키는” 논문과 저술을 생산하고 싶다고 발언하고 한문학 작품을 바탕으로 한 각종 교양물이 상업적으로 성공하는 현실은, 학회와 대학의 영역을 벗어나려는 연구자와 사회의 욕구 및 요구가 반영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만약 그렇다면 연구자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면서도 동시에 현대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한 모색의 과정에 오늘날의 한문학연구가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K C I

## 참고문헌

## &lt;단행본&gt;

- 김남이, 『집현전 학사의 삶과 문학세계』, 태학사, 2004.  
 김동욱, 『고려사대부작가론』, 박이정, 2004.  
 김성룡, 『한국문학사상사1 : 중세의 문인과 글쓰기』, 이회문화사, 2004.  
 김여주, 『조선후기 여성문학의 재조명』,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2004.  
 김영수, 『조선시가연구』, 새문사, 2004.  
 김준형, 『한국패설문학연구』, 보고사, 2004.  
 김진영, 『고전작가의 풍모와 문학』, 경희대학교출판부, 2004.  
 남윤수, 『한국의 和陶辭 研究』, 역락, 2004.  
 류호진, 『李穡 詩의 藝術境界와 그 精神的 意味』, 경인문화사, 2004.  
 박무영·김경미·조혜란, 『조선의 여성들, 부자유한 시대에 너무나 비범했던』, 돌베개, 2004.  
 서신혜, 『金紹行的 글쓰기 방식과 三韓拾遺』, 박이정, 2004.  
 성범중·박경신, 『韓脩와 그의 漢詩』, 국학자료원, 2004.  
 여운필, 『高麗後期 漢詩의 研究』, 월인, 2004.  
 이동재, 『梅溪 喜偉의 삶과 문학』, 보고사, 2004.  
 이원걸, 『金宗直의 풍교시문학 연구』, 박이정, 2004.  
 이은영, 『祭文, 양식적 슬픔의 미학-조선초기의 제문을 중심으로』, 태학사, 2004.  
 정일남, 『조정 박제가 문학 연구』, 지식산업사, 2004.  
 진갑근, 『洪萬宗의 批評論 研究』, 푸른사상, 2004.  
 한국문학회 편, 『일본문화 접촉과 한국문학』, 세종출판사, 2004.

## &lt;역서&gt;

- 서신혜 편역, 『열녀 향량을 말하다』, 보고사, 2004.  
 신호열·김명호 공역, 『국역 연암집』 2, 민족문화추진회, 2004.  
 여운필·성범중·최재남 공역, 『역주 목은시교』 7~8, 월인, 2004.  
 이형대·이상원·이성호·박종우 공역, 『국역 고산유고』, 소명출판, 2004.  
 정민 역, 『國譯 岐峯集』, 역락, 2004.  
 정창권, 『향량, 산유화로 지다』, 풀빛, 2004.  
 조종업 역, 『수경계역 정암선생문집』, 경인문화사, 2004.  
 \_\_\_\_\_, 『완역 우암송선생시집』, 경인문화사, 2004.

## &lt;학위논문&gt;

- 강경미, 「沈澐 洪吉周 散文 研究」,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4.
- 강민경, 「朝鮮中期 遊仙文學 研究」,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2004.
- 강성숙, 「15세기 文獻 笑話 研究」,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4.
- 구본섭, 「寒岡 鄭愷의 道學的 詩世界」,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2004.
- 권주연, 「祿取才 晝題詩의 文風 研究」, 아주대 박사학위논문, 2004.
- 김경화, 「<丙子日記>에 대한 여성문학적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4.
- 김광년, 「息庵 金錫胄 散文 研究」,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4.
- 김병진, 「무명자 윤기의 思想과 文學」,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4.
- 김영옥, 「완당 김정희 제화시 연구」,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2004.
- 김원준, 「芝峯 李晳光의 삶과 詩世界」, 영남대 박사학위논문, 2004.
- 김월성, 「朝鮮後期 神韻論 受容 研究」, 강원대 박사학위논문, 2004.
- 김유미, 「<愁城志>의 서술구조와 주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4.
- 김인아, 「백호 임제의 시문학 연구」, 조선대 박사학위논문, 2004.
- 김재룡, 「조선전기 매화시 연구 : 서거정·김시습·이항을 중심으로」, 원광대 박사학위논문, 2004.
- 김종서, 「16世紀 湖南詩壇과 唐風」,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4.
- 김종철, 「<東文選>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4.
- 김태호, 「쌍매당 이철 영사시 연구」, 상명대 석사학위논문, 2004.
- 김하윤, 「陶谷 李宜顯의 作文論 研究」,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2004.
- 김현미, 「18세기 연행록의 전개와 특성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4.
- 류수연, 「김려의 <사유약부> 연구」, 세종대 석사학위논문, 2004.
- 박상영, 「東谿 趙龜命 散文 研究」,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4.
- 박현숙, 「李鈺 소품문의 작품 세계」,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4.
- 배미정, 「朝鮮後期 尺牘文學의 流行 과 그 背景 : 申靖夏 를 중심으로」,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서경희, 「<옥선몽> 연구 : 19세기 소설의 정체성과 소설론의 향방」,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4.
- 성당제, 「藥泉 南九萬 문학의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4.
- 송수익, 「<금오신화>의 작가의식 연구」, 공주대 석사학위논문, 2004.
- 송지영, 「於于 柳夢寅 散文 研究」,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4.
- 신복호, 「18世紀 館閣文學 研究 : 李宜顯 李德壽 徐命膺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4.
- 신일권, 「자하 신위의 제화시 연구 : 시·화론을 중심으로」,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04.

- 신태영, 「〈皇華集〉研究：文學的 交遊樣相과 明使의 朝鮮認識」,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4.
- 오재환, 「溪谷 張維의 詩文學 研究」,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4.
- 유임순, 「허난설현 시에 나타난 페미니즘 의식 연구」, 공주대 석사학위논문, 2004.
- 유정월, 「문헌 소화의 구성과 의미 작용에 대한 기호학적 연구-『명엽지해』를 중심으로」,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2004.
- 윤재환, 「梅山 李夏鎭 詩文學 研究：星湖 家學의 成立 과 關聯 하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4.
- 윤지훈, 「東海 趙琮鎭의 散文에 대한 일고찰」,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4.
- 이건호, 「김병연시 연구」, 조선대 박사학위논문, 2004.
- 이관성, 「陶厓 洪錫謀의 漢詩 研究」,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4.
- 이규호, 「〈日得錄〉을 통해 본 正祖의 文學論」,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2004.
- 이기대, 「19세기 漢文長篇小說 研究：創作 基盤과 作家意識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4.
- 이길원, 「금오신화에 나타난 김시습의 사상 연구」, 공주대 석사학위논문, 2004.
- 이복자, 「〈금오신화〉의 우의성 연구」, 경성대 박사학위논문, 2004.
- 이상성, 「서포 김만중의 시문학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04.
- 이수진, 「〈남원고사〉의 삽입한시 연구」, 선문대 석사학위논문, 2004.
- 이재충, 「〈稗官雜記〉의 詩話 研究」,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2004.
- 이정원, 「놀이 박상의 시문학 연구」, 조선대 박사학위논문, 2004.
- 이주희, 「〈三韓拾遺〉의 敘事體系 및 作家意識研究」, 성신여대 박사학위논문, 2004.
- 임준철, 「漢詩 意象論과 朝鮮中期 漢詩 意象 研究：林悌·車天輅·權輶·鄭斗卿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4.
- 장미경, 「宣祖朝 전쟁 체험 한시 연구：尹斗壽·鄭文學·權輶·鄭希得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4.
- 장영희, 「〈亂中雜錄〉의 形成過程과 人物敘事의 樣相」,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4.
- 장준기, 「朝鮮後期 戰爭小說 研究」, 동아대 박사학위논문, 2004.
- 정일교, 「〈동문선〉 소개 '설'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2004.
- 정현섭, 「〈천군전〉의 의미구조와 사상적 연역」, 경성대 석사학위논문, 2004.
- 정 훈, 「지봉 이수광의 한시 연구」, 전북대 박사학위논문, 2004.
- 제영민, 「삼연 김창흡의 시문학 연구：시에 나타난 관물정신을 중심으로」,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2004.
- 조경은, 「한국 고전문학의 대화형식 텍스트 연구：『동문선』을 대상으로」,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2004.
- 조동영, 「鵝溪 李山海 文學의 研究」,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4.

- 조영호, 「15세기 官僚文人의 漢詩研究 : -金守溫·徐居正·李承召·姜希孟 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4.
- 조정림, 「고봉 기대승의 시문학 연구», 조선대 박사학위논문, 2004.
- 조혁상, 「朝鮮朝 劍舞詩의 一研究」,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4.
- 주정렬, 「高麗中期 自然詩 研究」,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4.
- 최문형, 「栗谷의 主氣論의 文學觀과 詩世界」,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4.
- 최옥현, 「아정 이덕무 <청비록>의 평어 연구」, 광운대 석사학위논문, 2004.
- 허이중, 「하서 김인후의 시문학 연구」, 조선대 석사학위논문, 2004.
- 허정운, 「雪谷 詩의 「雨」이미지 研究」,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4.
- 황경일, 「玉所 權變의 山水 散文 研究 : 「海山錄」과 「夢記」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4.

<학술지 수록 논문>

- 강동엽, 「『최척전』에 나타난 임진왜란과 동아시아」, 『어문론총』 41, 한국문학언어학회, 2004.
- 강명관, 「한문고전의 활용-대중화의 전제조건」, 『東洋漢文學研究』 20, 동양한문학회, 2004.
- 강석근, 「眞靜國師의 二元的 세계관과 文學적 지향」, 『한국문학논총』 37, 한국문학학회, 2004.
- 강정서, 「申緯 詩에 나타난 世界認識의 對立 과 그 意味」, 『문학과 언어』 26, 문학과 언어학회, 2004.
- 강지희, 「洪貴達 詩에 나타난 儒仙의 삶과 虛白에의 지향」, 『漢文學報』 11, 우리한문학회, 2004.
- 강혜선, 「나를 그리는 사람, 강세황」, 『문헌과해석』 26, 문헌과해석사, 2004.
- \_\_\_\_\_, 「천리를 따르는 집 順菴」, 『문헌과해석』 27, 문헌과해석사, 2004.
- \_\_\_\_\_, 「농암 형제의 여행시문」, 『문헌과해석』 29, 문헌과해석사, 2004.
- 곽차섭, 「고전은 어떻게 '실용화'되는가?」, 『東洋漢文學研究』 20, 동양한문학회, 2004.
- 구분현, 「李安訥 邊塞詩 研究」, 『韓國漢詩研究』 12, 한국한시학회, 2004.
- 구사회, 「石亭 李定稷의 文論에 관한 研究」, 『韓國言語文學』 52, 한국언어문학회, 2004.
- \_\_\_\_\_, 「石亭 李定稷 의 문장의식과 문예론적 특질」, 『국어국문학』 136, 국어국문학학회, 2004.
- 구지현, 「『安東世稿 附聯珠錄』 소재 작품의 작가와 시작시기 및 이를 통해 본 김성달 집안의 詩作活動 樣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9, 한국고전여성문

- 학회, 2004.
- 권도경, 「근대 이행기 한문소설 「포의교집」에 나타난 여성의 몸 몸의 주체성 실현  
양상과 그 의미」, 『인문연구』 47,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04.
- 권순근, 「李鈺 傳의 시정세대 묘사와 諷刺」, 『漢文教育研究』 22, 한국한문교육학  
회, 2004.
- 권순열, 「學圃 梁彭孫의 문학」, 『古詩歌研究』 13, 한국고시가문학회, 2004.
- 권혁명, 「石川 林億齡의 現實認識과 그 對應」, 『韓國漢詩研究』 12, 한국한시학회,  
2004.
- 권혁진, 「高麗前期 漢詩에 나타난 山의 다양한 의미-12세기를 중심으로-」, 『漢文  
古典研究』 8, 한국한문고전학회, 2004.
- \_\_\_\_\_, 「11세기 文의 확산 원인 연구」, 『漢文古典研究』 9, 한국한문고전학회,  
2004.
- 금동현, 「柳夢寅 散文理論의 構造와 意味-이른바 ‘先秦古文派’ 論理에 대한 再檢  
討를 겸하여-」, 『韓國漢文學研究』 34, 한국한문학회, 2004.
- 金鍾喆, 「여말선초 시문선집 편찬의식으로서의 ‘東人의 文明意識과 ‘王化意識」, 『東  
方漢文學』 26, 동방한문학회, 2004.
- 김경미, 「〈담정유고〉를 통해 보는 여성의 형상화와 인식의 의미」, 『동방고전문학  
연구』 6, 동방고전문학회, 2004.
- \_\_\_\_\_, 「17세기 가부장제의 기획-‘류씨 부인’ 프로젝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8,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4.
- \_\_\_\_\_, 「淫詞小說의 수용과 19세기 한문소설의 변화-〈금병매〉를 중심으로」, 『고  
전문학연구』 25, 한국고전문학회, 2004.
- 김경수, 「晦軒詩에 나타난 思想에 대하여」, 『語文研究』 32-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4.
- 김광년, 「金錫胄의 『古文百選』 편찬과 唐宋派의 수용」, 『東洋漢文學研究』 20, 동  
양한문학회, 2004.
- 김광순, 「天君傳의 構造와 小說史的 位相」, 『어문논총』 40, 한국문학언어학회,  
2004.
- 김귀석, 「〈雲英傳〉의 媒介詩 연구-宮女들의 漢詩를 중심으로-」, 『古詩歌研究』  
13, 한국고시가문학회, 2004.
- 김근데, 「雪橋 安錫徽의 생애와 詩」, 『문헌과해석』 28, 문헌과해석사, 2004.
- 김기림, 「『太平閑話滑稽傳』에 나타난 여성상과 그 의미」, 『東方漢文學』 27, 동방  
한문학회, 2004.
- 김남기, 「肅宗의 문예적 관심과 한시 세계」, 『진단학보』 98, 진단학회, 2004.
- 김동석, 「변영만이 본 신채호」, 『漢文學報』 10, 우리한문학회, 2004.

- 김동욱, 「<琉球國世子> 이야기의 流變樣相」, 『韓民族語文學』 44, 한민족어문학회, 2004.
- , 「<靑野談藪>의 源泉에 대한 몇 가지 의문제기」, 『陶南學報』 20, 도남학회, 2004.
- 김동준, 「南冥 喜植의 絶句型 漢詩 研究」, 『남명학보』 3, 남명학회, 2004.
- , 「한국 器物銘의 역사와 성격에 대한 小考」, 『신단학보』 97, 진단학회, 2004.
- 김동협, 「<琴生異聞錄>의 創作背景과 敘述意識」, 『東方漢文學』 27, 동방한문학회, 2004.
- 김명순, 「洪錫謨의 游燕藁 研究」, 『東方漢文學』 27, 동방한문학회, 2004.
- 김명희, 「최초의 조선 여성 문단인-운초 시의 특징」, 『여성문학연구』 11, 한국여성문학학회, 2004.
- 김명희·류수수양, 「『朝鮮詩選』의 편집 과정과 의의」, 『東方學』 10,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2004.
- 김문희, 「傳奇小說의 傳奇的 서술양상과 그 함의」, 『한국고전연구』 10, 한국고전연구학회, 2004.
- 김미선, 「映湖 禪師의 禪詩」, 『漢文古典研究』 9, 한국한문고전학회, 2004.
- 김병진, 「無名子 尹愔의 實錄의 文學論」, 『漢文學報』 11, 우리한문학회, 2004.
- 김보현, 「<企齋記異>의 사상적 토대와 미의식」, 『한국고전연구』 10, 한국고전연구학회, 2004.
- 김봉남, 「茶山 墓誌銘의 主題와 樣式的 特徵 辛酉獄事に 連累된 五人에 대한 묘지명에 관하여-」, 『어문논집』 49, 민족어문학회, 2004.
- 김상홍, 「韓國 漢文學과 生態의 問題」, 『韓國漢文學研究』 33, 한국한문학회, 2004.
- 김성기, 「金富軾의 儒學思想과 詩世界」, 『韓國漢詩研究』 12, 한국한시학회, 2004.
- , 「李齊賢의 歷史認識과 詩的 形象化」, 『開新語文研究』 22, 개신어문학회, 2004.
- 김성수, 「申光漢 <訴旱魃文>의 갈래考」, 『漢文古典研究』 8, 한국한문고전학회, 2004.
- 김성진, 「朝鮮前期 通信使의 不傳行錄에 대하여」, 한국문학회 편 『일본문화 접촉과 한국문학』, 세종출판사, 2004.
- 김소영, 「尺牘을 통해 본 梅泉 黃玟의 삶과 시대의식」, 『漢文學報』 10, 우리한문학회, 2004.
- 김수진, 「凌壺觀 李麟祥의 文學과 繪畫에 대한 일고찰 시대인식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26, 한국고전문학회, 2004.
- 김승호, 「『周王傳』에 나타난 合成的 敘事構成 양상과 그 의미」, 『語文研究』 32-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4.

- \_\_\_\_\_, 「佛敎傳奇小説의 유형 설정과 그 전개 양상」, 『古小説研究』 17, 한국고소설학회, 2004.
- 김 영, 「비움[虛靜]의 哲學과 寓言」, 『고전문학연구』 26, 한국고전문학회, 2004.
- \_\_\_\_\_, 「老莊의 生態思想과 寓言」, 『韓國漢文學研究』 33, 한국한문학회, 2004.
- 김영봉, 「17세기 민족문학의 자각과 주체적 문학관의 대두」, 『동방고전문학연구』 6, 동방고전문학회, 2004.
- 김영봉, 「梅泉 詩의 排律에 대하여」, 『古詩歌研究』 13, 한국고시가문학회, 2004.
- 김영숙, 「李匡師의 「破鏡合」 구성과 삼국사기 「薛氏女」傳 수용·전승 양상」, 『韓民族語文學』 45, 한민족어문학회, 2004.
- 김영주, 「朝鮮後期 少論系 文學理論의 形成 背景(1)- 陽明學 受容의 傳統을 통해 본 學問 思想의 特徵-」, 『東方漢文學』 26, 동방한문학회, 2004.
- 김영진, 「허필의 烟客詩稿」, 『문헌과해석』 26, 문헌과해석사, 2004.
- \_\_\_\_\_, 「유득공의 생애와 교유, 연보」, 『문헌과해석』 29, 문헌과해석사, 2004.
- 김원준, 「詔使와의 次韻詩에 나타난 芝峯의 意識-지봉의 「皇華集次韻」을 통해-」, 『韓民族語文學』 44, 한민족어문학회, 2004.
- \_\_\_\_\_, 「芝峯 李晬光의 文學觀과 詩評樣相」, 『인문연구』 45 ~46,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04.
- 김월성, 「楚亭 朴齊家의 味論 詩學과 無味論」, 『語文研究』 32-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4.
- 김유미, 「〈愁城志〉의 구조적 특성과 그 의의」, 『한국고전연구』 10, 한국고전연구학회, 2004.
- 김윤조, 「유득공 시의 문예미-『사가시집』에 실린 시를 중심으로-」, 『韓國漢詩研究』 12, 한국한시학회, 2004.
- \_\_\_\_\_, 「조선 바둑의 최고수, 덕원령」, 『문헌과해석』 27, 문헌과해석사, 2004.
- \_\_\_\_\_, 「유득공의 『三韓詩紀』」, 『문헌과해석』 29, 문헌과해석사, 2004.
- 김은수, 「朴祥 詩의 선미적 情趣」, 『古詩歌研究』 14, 한국고시가문학회, 2004.
- 김은정, 「신의성의 金剛山 유람과 문학적 표현」, 『진단학보』 98, 진단학회, 2004.
- 김정녀, 「〈金華寺夢遊錄〉의 異本 계열과 善本」, 『민족문화연구』 4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4.
- \_\_\_\_\_, 「삼한습유에 나타난 禮에 관한 논쟁과 그 의미」, 『국어국문학』 137, 국어국문학회, 2004.
- 김정숙, 「『洛東野言』 所載 소설에 대한 일고찰- 조선후기 재자가인소설의 관점에 서-」, 『古小説研究』 17, 한국고소설학회, 2004.
- 김중서, 「「蓀谷山人傳」과 李達의 生涯」, 『漢文學報』 11, 우리한문학회, 2004.
- \_\_\_\_\_, 「16세기 湖南詩壇의 風格的 特性-「淸」의 풍격을 중심으로-」, 『東方漢文學』

- 27, 동방한문학회, 2004.
- , 「孤竹 崔慶昌 詩의 風格-淸寒·悍勁을 중심으로-」, 『韓國漢詩研究』 12, 한국한시학회, 2004.
- , 「岐峯 白光弘과 湖南詩壇」, 『韓國學論集』 38,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2004.
- , 「청계천 수표교에서」, 『문헌과해석』 26, 문헌과해석사, 2004.
- 김종진, 「藥山 吳光運 시의 문예미학적 특징-경이로움과 정취를 중심으로-」, 『韓國漢文學研究』 34, 한국한문학회, 2004.
- , 「鄭元容의 『燕槎錄(詩)』 小考」, 『한국어문학연구』 42,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4.
- 김준형, 「〈金僊覺〉의 발굴과 소설사적 의의」, 『古小說研究』 18, 한국고소설학회, 2004.
- , 「15~16세기 서사문학사에서 갈래간 넘나들의 양상과 그 의미-필기·패설·전기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24, 민족문학사학회, 2004.
- 김진경, 「高麗時代 辭賦 研究-作品概觀과 存在樣相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50, 민족어문학회, 2004.
- 김진규, 「茶山 雜文 研究-〈吊蠅文〉과 〈擊蛇解〉를 중심으로」, 『새얼어문논집』 16, 새얼어문학회, 2004.
- 김진욱, 「鄭澈 漢詩 世界觀 研究」, 『古詩歌研究』 14, 한국고시가문학회, 2004.
- 김창호, 「東岳 李安訥 詩의 研究」, 『한국문학연구』 5,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4.
- , 「水色 허적 詩世界의 研究」, 『어문논집』 49, 민족어문학회, 2004.
- 김탁환, 「디지털시대 한문고전번역의 역할」, 『東洋漢文學研究』 20, 동양한문학회, 2004.
- 김태준, 「한국문학의 일본체험」, 한국문학회 편 『일본문화 접촉과 한국문학』, 세종출판사, 2004.
- 김풍기, 「오대산 인식의 역사적 변천과 문화사적 의미」, 『東方漢文學』 26, 동방한문학회, 2004.
- 김형섭, 「雲巢 李英裕의 美意識」, 『漢文學報』 11, 우리한문학회, 2004.
- 남궁원, 「元天錫의 漢詩에 나타난 孤獨의 樣相」, 『漢文古典研究』 8, 한국한문고전학회, 2004.
- 남은경, 「인조말, 효종조의 문풍 변화-『瀋陽狀啓』와의 관련을 중심으로-」, 『韓國漢文學研究』 34, 한국한문학회, 2004.
- 남재철, 「菊圃 姜樸의 詩觀」, 『한국문학연구』 5,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4.
- , 「四家詩人의 詩語論-李書九의 경우를 중심으로-」, 『韓國漢詩研究』 12, 한국한시학회, 2004.

- \_\_\_\_\_, 「李書九 說話의 歷史의 背景-說話의 異人化 要因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25, 한국고전문학회, 2004.
- \_\_\_\_\_, 「허난설현 시문학 텍스트의 몇 국면」, 『민족문학사연구』 26, 민족문학사학회, 2004.
- 류준경, 「朴孝娘 사건의 서사화 양상과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25, 한국고전문학회, 2004.
- 문명순, 「敬亭 李民成의 詩論」, 『漢文學報』 11, 우리한문학회, 2004.
- 문범두, 「琴生異聞錄의 作家意識과 主題」, 『韓民族語文學』 45, 한민족어문학회, 2004.
- 문정자, 「恭齋 尹斗緒의 詩世界에 대한 試論的 考察」, 『漢文學論集』 22, 근역한문학회, 2004.
- 민병수, 「漢文學은 Text 探究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語文研究』 32-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4.
- \_\_\_\_\_, 「後四家의 詩史的 位相」, 『韓國漢詩研究』 12, 한국한시학회, 2004.
- 박동욱, 「惠實 李用休 烈女傳의 입진 의식」, 『東方學』 10,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2004.
- 박명희, 「15~6세기 전남지역 문인의 詩壇形成과 山水美 표현」, 『東方漢文學』 26, 동방한문학회, 2004.
- \_\_\_\_\_, 「無用 秀演大師의 시문 연구」, 『古詩歌研究』 14, 한국고시기문학회, 2004.
- 박무영, 「19세기 향촌사족의 여성 형상 : '金三宜堂(1)-향촌사족 연구와 『三宜堂稿』 살리기를 겸하여-」, 『고전문학연구』 25, 한국고전문학회, 2004.
- \_\_\_\_\_, 「李匡師 祭亡室文의 연구-18세기 제망실문 연구의 일환으로」, 『국어국문학』 138, 국어국문학회, 2004.
- 박병익, 「玉峯 白光勳의 唐詩風 展開樣相 考」, 『古詩歌研究』 14, 한국고시기문학회, 2004.
- 박성규, 「李奎報 年譜研究」, 『韓國漢文學研究』 34, 한국한문학회, 2004.
- 박수필, 「幻戲記에 나타난 연암의 생각 읽기」, 『문헌과해석』 27, 문헌과해석사, 2004.
- \_\_\_\_\_, 「18세기 '사이(間)'의 美學과 그 意味-燕巖 一派를 중심으로-」, 『語文研究』 32-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4.
- \_\_\_\_\_, 「문장가 홍길주의 생각」, 『문헌과해석』 29, 문헌과해석사, 2004.
- 박영미, 「崔永年 文學論 考察-친일 문학론을 중심으로-」, 『漢文學論集』 22, 근역한문학회, 2004.
- 박영민, 「遊山記의 시공간적 추이와 그 의미」, 『민족문화연구』 40,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4.

- 박용만, 「江華學派의 聯句詩에 관한 고찰」, 『韓國漢詩研究』 12, 한국한시학회, 2004.
- 박우훈, 「충남지역의 한문학 연구」, 『東方漢文學』 26, 동방한문학회 2004.
- 박은정, 「李鈺 烈女傳의 烈 관념에 대한 小考」, 『東方學』 10,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2004.
- 박일용, 「〈만복사저포기〉의 형상화 방식과 그 현실적 의미」, 『古小說研究』 18, 한국고소설학회, 2004.
- 박중훈, 「白光弘의 시세계와 ‘仁’ 사상」, 『韓國學論集』 38,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2004.
- 박준호, 「李建昌의 『淸隱傳』에 대하여」, 『漢文學報』 11, 우리한문학회, 2004.
- 박철상, 「白光弘 內賜本 『選詩』의 書誌的 의미」, 『韓國學論集』 38,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2004.
- \_\_\_\_\_, 「趙秀三의 신자료 『聯床小諧』에 대하여」, 『韓國學論集』 38,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2004.
- \_\_\_\_\_, 「유득공의 賜書樓와 추사」, 『문헌과해석』 29, 문헌과해석사, 2004.
- \_\_\_\_\_, 「秋史가 編刊한 『詩龔錄定杜少陵七言絕句』의 발굴과 그 가치」 『서지학보』 28, 한국서지학회, 2004.
- 배규범, 「『東文選』 편찬과 수록된 佛家詩文 의 의미」, 『국제어문』 30, 국제어문학회, 2004.
- \_\_\_\_\_, 「香奩과 虛無의 詩學-燕山君의 문학적 思惟를 중심으로-」, 『語文研究』 32-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4.
- 배미정, 「신정하 尺牘의 즐거움과 아름다움」, 『문헌과해석』 27, 문헌과해석사, 2004.
- 백승호, 「18세기 南人 文壇의 詩會-蔡濟恭·陸萬中 을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29,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2004.
- 백연태, 「徐居正의 題畫詩 창작에 대해-『東人詩話』 예화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 『청람어문교육』 29, 청람어문교육학회, 2004.
- 변중현, 「唐·宋詩가 高麗朝 漢詩에 미친 영향」, 『東方漢文學』 27, 동방한문학회, 2004.
- 서신혜, 「〈晩河夢遊錄〉에서 作詩와 遊覽의 기능」 『어문론총』 41, 한국문학언어학회, 2004.
- \_\_\_\_\_, 「『逸士遺事』 여성 기사로 본 韋庵 張志淵의 시각, 그 시대적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8,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4.
- 성담제, 「藥泉 南九萬의 古土 回復意志」, 『漢文學報』 10, 우리한문학회, 2004.
- 성범중, 「礪溪 李養吾의 漢詩世界」, 『韓國漢詩研究』 12, 한국한시학회, 2004.

- 손영화, 「조선조 여성 퇴기의 새로운 모색-金錦園의 <湖東西洛記>를 중심으로-」, 『국어문학』 39, 국어문학회, 2004.
- 손혜리, 「研經齋 成海應의 인물기사 연구」, 『민족문학사연구』 24, 민족문학사학회, 2004.
- 송백헌, 「完豐大君과 浮海詩」, 『開新語文研究』 22, 개신어문학회, 2004.
- 송병렬, 「擬人體 散文의 談論 方式과 그 特徵」, 『東方漢文學』 26, 동방한문학회, 2004.
- 송혁기, 「김창협 비평의 산문사적 의의」, 『한국문학연구』 5,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4.
- \_\_\_\_\_, 「신경하의 문학 인식」, 『문헌과해석』 27, 문헌과해석사, 2004.
- 신두환, 「'상소문'의 문예미학 탐색」, 『韓國漢文學研究』 33, 한국한문학회, 2004.
- \_\_\_\_\_, 「寒暄堂 金宏弼의 詩文에 나타난 '性理美學' 探索」, 『漢文教育研究』 23, 한국한문교육학회, 2004.
- 신상필, 「『企齋記異』의 성격과 위상」, 『민족문학사연구』 24, 민족문학사학회, 2004.
- \_\_\_\_\_, 「15세기 筆記에서의 敘事 수용 양상」, 『韓國漢文學研究』 33, 한국한문학회, 2004.
- 신승훈, 「朝鮮中期 文章家들의 陽明學 受容의 樣相과 意味」, 『東洋漢文學研究』 20, 동양한문학회, 2004.
- 신익철, 「18세기 대화시의 세 가지 양상」, 『한국시가연구』 15, 한국시가학회, 2004.
- 신태수, 「<桃花女·鼻荊郎> 說話의 構成原理와 對稱의 世界觀의 向方」, 『韓民族語文學』 45, 한민족어문학회, 2004.
- \_\_\_\_\_, 「『기재기이』의 환상성과 교환 가능성의 수용 방향」, 『古小說研究』 17, 한국고소설학회, 2004.
- 신태영, 「明使 董越의 「朝鮮賦」에 나타난 朝鮮認識」, 『漢文學報』 10, 우리한문학회, 2004.
- 심경호, 「원전연구와 고전 텍스트의 현대적 변용」, 『東洋漢文學研究』 20, 동양한문학회, 2004.
- \_\_\_\_\_, 「조선후기 한문학과 袁宏道」, 『韓國漢文學研究』 34, 한국한문학회, 2004.
- \_\_\_\_\_, 「한국 한문산문의 발달과 韓愈 문장의 수용」, 『어문논집』 50, 민족어문학회, 2004.
- 안대회, 「18·19세기의 주거문화와 상상의 정원 조선후기 산문가의 記文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97, 진단학회, 2004.
- \_\_\_\_\_, 「『秋齋紀異』의 인간 발견과 인생 해석」, 『韓國學論集』 38,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2004.
- \_\_\_\_\_, 「俚諺引과 李鈺의 비평」, 『문헌과해석』 28, 문헌과해석사 2004.

- \_\_\_\_\_, 「朴齊家の 『竟信堂夾袋』와 北關風情」, 『韓國漢詩研究』 12, 한국한시학회, 2004.
- \_\_\_\_\_, 「李晔光의 『芝峰類說』과 조선후기 名物考證學의 전통」, 『진단학보』 98, 진단학회, 2004.
- 안병학, 「金淨 詩世界에서 삶의 無常性과 그 克服의 形象化」, 『한국문학연구』 5,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4.
- 안순태, 「南公轍의 文藝趣向과 漢詩」, 『韓國漢詩研究』 12, 한국한시학회, 2004.
- 안영길, 「17세기말 18세기초 한문학 비평 연구-農巖 金昌協을 중심으로-」, 『漢文古典研究』 9, 한국한문고전학회, 2004.
- \_\_\_\_\_, 「虛景의 特性과 美學」, 『漢文學論集』 22, 근역한문학회, 2004.
- 안영훈, 「'김유신전'의 두 계열과 창작 양상」, 『어문론총』 41, 한국문학언어학회, 2004.
- 안창수, 「<김유신전>의 서사문학적 특징」, 『韓民族語文學』 44, 한민족어문학회, 2004.
- 양승민, 「<김영철전>의 형상화 방식과 그 작가의식」, 『국어국문학』 138, 국어국문학회, 2004.
- 양승민·박재연, 「원작 계열 <金英哲傳>의 발견과 그 자료적 가치」, 『古小說研究』 18, 한국고소설학회, 2004.
- 엄기영, 「<大觀齋記夢>의 창작 방법 연구-창작 소재를 중심으로」, 『古小說研究』 18, 한국고소설학회, 2004.
- 여운필, 「蒼石詩에 대한 愚伏의 批評의 忠告」, 『韓國漢詩研究』 12, 한국한시학회, 2004.
- 오석환, 「農巖 金昌協의 序跋類 文章 研究」, 『漢文學論集』 22, 근역한문학회, 2004.
- 오용원, 「金昌協의 文藝意識과 詩論 研究」, 『한국어문학연구』 42,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4.
- 용환진, 「關東八景의 景觀 特徵에 관한 考察」, 『漢文古典研究』 9, 한국한문고전학회, 2004.
- 우용순, 「장유 사유방식에 대한 한 이해-생태학적 인식의 모색-」, 『韓國漢文學研究』 33, 한국한문학회, 2004.
- \_\_\_\_\_, 「조선전기 금강산 유산시의 사례 연구-김시습의 『遊關東錄』 이이의 『楓嶽行』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50, 민족어문학회, 2004.
- 원주용, 「<南谷記>를 통해본 牧隱의 出處觀」, 『漢文學報』 10, 우리한문학회, 2004.
- 유기욱, 「벼루 소재 銘에 受容된 儒家的 處世의 指標와 意味」, 『韓國言語文學』

- 52, 한국언어문학회, 2004.
- 유육례, 「丁克仁의 贈詩 研究」, 『古詩歌研究』 14, 한국고시가문학회, 2004.
- 유이경, 「說 장르 규명을 위한 시론」, 『한국고전연구』 10, 한국고전연구학회, 2004.
- 유종국, 「鰲峯 金齊閔의 生涯와 詩世界에 대한 研究」, 『국어문학』 39, 국어문학회, 2004.
- 유호진, 「退溪 詩의 이미지 연구-상승의 이미지 물의 이미지 매화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退溪學報』 116, 퇴계학연구원, 2004.
- 유호진·우응순, 「樓亭題詠의 시공간적 분포와 그 의미」, 『민족문화연구』 40,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4.
- 윤경희, 「金昌翁의 丹丘日記 연구」, 『민족문화연구』 4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4.
- 윤인현, 「李仁老와 李奎報·漢詩의 對比 고찰-李仁老의 用事詩에 나타난 新意와 李奎報 新意詩에 나타난 用事를 중심으로-」, 『語文研究』 32-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4.
- \_\_\_\_\_, 「鄭知常, 李穡의 시풍과 후대의 시평」, 『한국고전연구』 10, 한국고전연구학회, 2004.
- 윤재민, 「秋齋 趙秀三의 詩에서 脫俗의 의미」, 『韓國學論集』 38,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2004.
- 윤재환, 「高麗朝 詩風 轉換의 의미」, 『韓民族語文學』 44, 한민족어문학회, 2004.
- \_\_\_\_\_, 「玉洞 李激의 文學觀 研究」, 『東方漢文學』 27, 동방한문학회, 2004.
- \_\_\_\_\_, 「靑雲 李滄 詩文學 研究」, 『韓民族語文學』 45, 한민족어문학회, 2004.
- 윤주필, 「동아시아 고소설의 우언 활용의 비교 고찰」, 『고전문학연구』 26, 한국고전문학회, 2004.
- 윤채근, 「金萬重 思惟의 世界表象 樣式과 『九雲夢』-空의 의미와 通俗性을 중심으로」, 『韓國漢文學研究』 34, 한국한문학회, 2004.
- 이경구, 「谷雲 金壽增의 은거 생활과 문예 활동」, 『한국학보』 2004-3, 일지사, 2004.
- 이경미, 「<丁生傳>에 나타난 人物形象 연구」, 『문학과 언어』 26, 문학과 언어학회, 2004.
- 이경수, 「李德懋의 神韻論 受容과 漢詩의 文藝美」, 『韓國漢詩研究』 12, 한국한시학회, 2004.
- 이구의, 「崔致遠의 ‘大崇禰寺碑銘’攷」, 『東方漢文學』 26, 동방한문학회, 2004.
- 이군선, 「陶厓 洪錫謀의 『游燕藁』」, 『漢文學報』 11, 우리한문학회, 2004.
- \_\_\_\_\_, 「시로 쓴 지방지 <吳洲詩志>」, 『東方漢文學』 26, 동방한문학회, 2004.
- \_\_\_\_\_, 「耳溪家와 牛耳洞」, 『韓國漢文學研究』 33, 한국한문학회, 2004.

- 이권재, 『霽峯集』未登載 詩文 研究, 『古詩歌研究』14, 한국고시기문학회, 2004.
- 이기대, 「자료 발견을 통해 본 南啓宇의 藝術世界」, 『민족문화연구』4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4.
- 이동순, 「李彥瑣 시의 독창성 고찰-세계관의 검토를 통하여」, 『한국고전연구』10, 한국고전연구학회, 2004.
- 이동재, 「醒狂 李深源의 삶과 시 세계」, 『漢文古典研究』8, 한국한문고전학회, 2004.
- 이문규, 「許筠의 「東征賦」考-정철의 <관동별곡> 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開新語文研究』22, 개신어문학회, 2004.
- 李秉洵, 「朝鮮後期 反擬古主義 文學論 研究-내용과 형식-」, 『漢文學論集』22, 근역한문학회, 2004.
- 이상돈, 「禪坦 詩世界の 한 局面」, 『韓國漢文學研究』34, 한국한문학회, 2004.
- 이상주, 「雙谷九曲과 關聯 詩·文에 대한 考察」, 『東方漢文學』26, 동방한문학회, 2004.
- 이승수, 「李贊와 趙聖期の 비교론」, 『한국문학연구』5,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4.
- 이원걸, 「아담의 회작화 경향에 대하여」, 『漢文學報』11, 우리한문학회, 2004.
- 이원승, 「退溪詩의 一考察(2)」, 『陶南學報』20, 도남학회, 2004.
- 이윤갑, 「지역학 연구의 방향과 방법론」, 『東方漢文學』26, 동방한문학회, 2004.
- 이은봉, 「<蟬橋堂記>로 본 이름에 대한 고찰」, 『東洋古典研究』20, 동양고전학회, 2004.
- 李義康, 「조선조 문인의 杜詩 「同谷七歌」 수용과 해석」, 『韓國漢文學研究』34, 한국한문학회, 2004.
- 이재원, 「芝峯 李晳光의 筍子 研究」, 『漢文學論集』22, 근역한문학회, 2004.
- 이종목, 「빈암이 살던 곳」, 『문헌과해석』26, 문헌과해석사, 2004.
- \_\_\_\_\_, 「광주 石湖와 신정하·신방」, 『문헌과해석』27, 문헌과해석사, 2004.
- \_\_\_\_\_, 「안중관·안석경 부자와 충주의 가흥강」, 『문헌과해석』28, 문헌과해석사, 2004.
- \_\_\_\_\_, 「조선시대 臥遊 文化 研究」, 『진단학보』98, 진단학회, 2004.
- \_\_\_\_\_, 「15세기 후반 문단 추이와 估畢齋 金宗直」, 『국문학연구』12, 국문학회, 2004.
- \_\_\_\_\_, 「지방화 시대 한문학 연구의 시각과 방향」, 『韓民族語文學』45, 한민족어문학회, 2004.
- \_\_\_\_\_, 「해창위 가문이 누린 종암동의 풍류」, 『문헌과해석』29, 문헌과해석사, 2004.
- \_\_\_\_\_, 「쌍매당 李詹의 시세계」, 『관악어문연구』29,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2004.
- 이종호, 「퇴계 이황의 유기체 우주론과 생태사상」, 『韓國漢文學研究』33, 한국한

- 문학회, 2004.
- 이지영, 「〈回仙悟世邯鄲奇話〉에 나타난 장편 한문소설의 특징과 지향」, 『古小說研究』 18, 한국고소설학회, 2004.
- 이철희, 「秋史 金正喜의 시문학에 나타난 고증학의 영향」, 『한국시가연구』 15, 한국시가학회, 2004.
- 이택동, 「18세기 梅花詩 研究」, 『聖心語文論集』 26, 성심어문학회, 2004.
- \_\_\_\_\_, 「屏溪의 詩文에 투영된 認識과 그 思惟」, 『한국고전연구』 10, 한국고전연구학회, 2004.
- 이학당, 「炯菴 李德懋의 自然認識과 藝術成就」, 『漢文學報』 11, 우리한문학회, 2004.
- 이현식, 「연암 박지원 문학 속의 백이 이미지 연구」, 『東方學志』 123, 연세대 국학연구원, 2004.
- 이현호, 「申維翰 산문의 擬古성과 『莊子』 패러디」, 『東洋漢文學研究』 20, 동양한문학회, 2004.
- 이혜순, 「여성담론으로서의 任允擘堂의 理氣心性論 조선조 후기 여성 지성사 서술을 위한 시론」, 『고전문학연구』 26, 한국고전문학회, 2004.
- 이흥식, 「東谿 趙龜命의 <花王本紀> 연구」, 『한국언어문화』 26, 한국언어문화학회, 2004.
- \_\_\_\_\_, 「沈瀟 洪吉周의 「常氏宗族傳」 연구-孔方傳類 假傳의 전통과 연계하여」, 『語文研究』 32-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4.
- 이화형, 「崔滋의 新意와 用事에 대한 再考」, 『語文研究』 32-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4.
- 임준성, 「白雲 景閑의 詩世界-無心の 美學을 중심으로」, 『古詩歌研究』 13, 한국고시가문학회, 2004.
- 林采明, 「企齋 申光漢 詩의 形式的 特質」, 『韓國漢文學研究』 33, 한국한문학회, 2004.
- 장경남, 「남급의 <丙子日錄> 연구」, 『국제어문』 31, 국제어문학회, 2004.
- 장영희, 「16세기 筆記의 一考察-『己卯錄』과 『龍泉談寂記』-」, 『민족문학사연구』 26, 민족문학사학회, 2004.
- 전일우, 「韓中 使行文文學의 研究史的 意義와 展望」, 『崇實語文』 20, 숭실어문학회, 2004.
- 정경주, 「한문학에 나타난 부산지역 문화전통의 특성」, 『東方漢文學』 26, 동방한문학회, 2004.
- 정경훈, 「〈三一亭記〉의 구성과 표현기교」, 『漢文學報』 11, 우리한문학회, 2004.
- \_\_\_\_\_, 「龍洲 趙綱의 文學觀에 대한 研究」, 『韓國漢文學研究』 34, 한국한문학회, 2004.

- 정규복, 「<구운몽> 텍스트 문제의 근황」, 『민족문화연구』 40,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4.
- 정규식, 「나말여초 전기문학의 환상성과 문학적 형상화」, 『東洋漢文學研究』 20, 동양한문학회, 2004.
- 정길수, 「李義天論-18세기 老論淸流 지식인의 운명」, 『규장각』 27, 서울대 규장각, 2004.
- 정민, 「岐峯 白光弘의 人間과 文學世界」, 『韓國學論集』 38,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2004.
- \_\_\_\_\_, 「산자고새의 노래」, 『문헌과해석』 26, 문헌과해석사, 2004.
- \_\_\_\_\_, 「한반도 호랑이 지도론」, 『문헌과해석』 27, 문헌과해석사, 2004.
- \_\_\_\_\_, 「접시꽃과 해바라기의 착종과 오해」, 『문헌과해석』 29, 문헌과해석사, 2004.
- 정선모, 「『破閑集』 板刻에 있어서의 添削 문제와 그 文學史的 意義」, 『漢文學報』 10, 우리한문학회, 2004.
- 정소연, 「절구의 시학과 시조의 시학 象村 申欽의 방축 및 유배기 작품을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29,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2004.
- 정순희, 「陶菴 李緯 시의 문예미」, 『韓國漢文學研究』 34, 한국한문학회, 2004.
- \_\_\_\_\_, 「조선조 詩壇의 唐·宋 詩風 변전의 의미」, 『韓國言語文學』 52, 한국언어학회, 2004.
- 정시열, 「風格批評의 展開樣相 및 批評意識에 대한 一考」, 『韓民族語文學』 45, 한민족어문학회, 2004.
- 정연봉, 「한국 한문 우언론-우언의 원류와 양식적 특성에 관한 일 고찰」, 『우리어문연구』 22, 우리어문학회, 2004.
- 鄭羽洛, 「德溪 吳健의 文學思想과 그 形象原理」, 『東方漢文學』 27, 동방한문학회, 2004.
- 정우봉, 「삼교 안석경의 비평의식」, 『문헌과해석』 28, 문헌과해석사, 2004.
- \_\_\_\_\_, 「漢文修辭學 연구의 한 방법-主客法의 이론과 그 활용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49, 민족어문학회, 2004.
- 정인혁, 「조선후기 한문단편소설의 공간과 인물 연구-「茶母傳」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4.
- 정일남, 「박제가 문화이론의 대립통일구조」, 『漢文學報』 10, 우리한문학회, 2004.
- 정재철, 「『정언묘선』의 사유체계 및 심미의식」, 『韓國漢文學研究』 34, 한국한문학회, 2004.
- 정환국, 「나말여초 傳奇의 ‘육망의 형식화’에 대하여」, 『漢文學報』 11, 우리한문학회, 2004.
- 정후수, 「『海隣尺素』 13종 轉寫本 對照」, 『東洋古典研究』 20, 동양고전학회, 2004.

- 정 훈, 「이옥의 부 연구」, 『우리어문연구』 22, 우리어문학회, 2004.
- 조광국, 「〈靑白雲〉 한문본 연구-書誌 연구와 序文 분석을 중심으로-」, 『古小說研究』 18, 한국고소설학회, 2004.
- 조규익, 「燕行錄에 반영된 千山·醫巫閭山·首陽山の 내재적 의미」, 『語文研究』 32-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4.
- 조동일, 「옛글 되살려 오늘날 것 만들기」, 『語文學論叢』 23,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2004.
- \_\_\_\_\_, 「일본 비교문학계와의 교류」, 『비교문학』 34, 한국비교문학회, 2004.
- 조상우, 「애국계몽기 우연문학에 표현된 일본의 형상과 그 의미」, 『우리어문연구』 22, 우리어문학회, 2004.
- \_\_\_\_\_, 「애국계몽기 한문소설에 표출된 지식인의 여성인식-〈만하몽유록〉과 〈여영웅〉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4.
- 조영임, 「三唐詩人の '仙界憧憬'에 대한 小考」, 『韓國漢詩研究』 12, 한국한시학회, 2004.
- 조창록, 「頤齋 曹友仁의 '詞'에 대하여」, 『東方漢文學』 26, 동방한문학회, 2004.
- 조태성, 「儒士들의 시에 나타난 禪趣 연구-완당 김정희의 〈雲外夢中〉 詩帖을 중심으로-」, 『古詩歌研究』 14, 한국고시기문학회, 2004.
- 주경렬, 「高麗中期 田園詩 研究」, 『漢文教育研究』 22, 한국한문교육학회, 2004.
- 주승택, 「경북지역의 한문학 연구」, 『東方漢文學』 26, 동방한문학회 2004.
- 지연숙, 「〈최척진〉 이본의 두 계열과 선본」, 『古小說研究』 17, 한국고소설학회, 2004.
- 진영미, 「서울 경기 지역 한문학의 특성과 변모 양상-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東方漢文學』 26, 동방한문학회, 2004.
- \_\_\_\_\_, 「尹奉吉 시문집 재고」, 『漢文教育研究』 23, 한국한문교육학회, 2004.
- 진재교, 「茶山の 寓言詩와 그 性格-〈海狼行〉의 경우-」, 『고전문학연구』 26, 한국고전문학회, 2004.
- 채미화, 「중국에서의 韓國 漢文學 연구 현황과 과제」, 『韓國漢文學研究』 34, 한국한문학회, 2004.
- 최경열, 「『靑城雜記』의 사상과 문학적 성 : 試論」, 『漢文學報』 10, 우리한문학회, 2004.
- 최병철, 「申澗의 白石亭과 그 題詠에 나타난 空間 認識」, 『開新語文研究』 22, 개신어문학회, 2004.
- 최 식, 「沈瀞 洪吉周의 思惟方式」, 『漢文學報』 11, 우리한문학회, 2004.
- 최 응, 「『芝峰類說』의 한문학적 업적」, 『진단학보』 98, 진단학회, 2004.
- 최원경, 「『孰遂念』, 그 공간의 미학」, 『漢文學報』 11, 우리한문학회, 2004.

- 최재남, 「南遊 노정과 지리산·섬진강 권역의 한시」, 『배달말』 35, 배달말학회 2004.
- 하정승, 「陶隱 李崇仁 詩의 意象과 美意識의 表出樣相」, 『東方漢文學』 27, 동방한문학회, 2004.
- , 「圃隱詩에 나타난 經國意志와 歸鄉意識」, 『漢文學報』 10, 우리한문학회, 2004.
- 한성금, 「許蘭雪軒 漢詩의 美學的 考察-表現美를 중심으로-」, 『古詩歌研究』 14, 한국고시가문학회, 2004.
- 한예원, 「三國遺事 所載 讖詩를 통해 본 一然의 文學에 관한 연구」, 『古詩歌研究』 13, 한국고시가문학회, 2004.
- 한의승, 「〈布衣交集〉의 문체와 서사적 특징」, 『어문론총』 41, 한국문학언어학회, 2004.
- 한태문, 「『海行摠載』 소개 使行錄에 반영된 일본의 通過儀禮와 사행원의 인식」, 한국문화회 편, 『일본문화 접촉과 한국문학』, 세종출판사, 2004.
- 허권수, 「경남지역 한문학에 대한 역사적 고찰」, 『東方漢文學』 26, 동방한문학회, 2004.
- 현혜경, 「〈於野譚〉에 나타난 여성 삶의 형상화 樣相과 意味」,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4.
- 홍성욱, 「『新增東國輿地勝覽』 全羅(北)道條 所載 詩文 研究-金宗直의 全羅道 觀察使 時期 詩文과 對比하여-」, 『東方漢文學』 26, 동방한문학회, 2004.
- 홍순래, 「죽음예지의 夢中詩에 대하여」, 『漢文學論集』 22, 근역한문학회, 2004.
- 홍순석, 「박은 시의 수사기교 연구(1)-拗體의 분석을 중심으로-」, 『韓國漢文學研究』 34, 한국한문학회, 2004.
- 홍우흠, 「華西 李恒老의 山水詩 試探」, 『語文研究』 32-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4.
- 홍인숙, 「李德懋 척독 연구-내면, 혹은 '시적 자아'의 발견-」, 『韓國漢文學研究』 33, 한국한문학회, 2004.
- 홍학회, 「한국 道學詩 연구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 『한국고전연구』 10, 한국고전연구학회, 2004.
- 황수연, 「〈示諸婦文〉 해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4.
- 황수정, 「梅泉 黃玹 詩에 나타난 實行性」, 『古詩歌研究』 13, 한국고시가문학회, 2004.
- , 「梅泉 黃玹 交遊詩 研究」, 『古詩歌研究』 14, 한국고시가문학회, 2004.
- 황재문, 「신체호 시의 성격과 詩論의 向方」, 『한국문학논총』 37, 한국문화회, 2004.